

중세 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

김정하 | 부산외대

중세 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

2018.09.14
김정하(지중해지역원)

1

발표의 전제

1. 인류의 역사는 다문화 문명교류의 역사
2. 시대별, 지역별 다문화 문명교류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

2

발표 요지

- 저는 “관점을 바꾸면 (기존의 사실들도) 새롭게 보인다” 는 말로 문명 간 교류의 역사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.
- 이에 근거, 오늘은 중세 지중해 다문화 공존 (or 문명교류)의 몇 가지 유형과 그 시사점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.

3

본 연구의 특징

- ▶ 역사를 Long Term Prospective로 고찰한다는 점에서 거대사론에 근접
- ▶ 철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실증주의적이며,
- ▶ 역사와 역사연구는 다르다는 주장(역사해석의 과도한 주관성 개입에 반대)한다는 측면에서 E.H.Carr(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)의 역사관을 비판
- ▶ 역사의 흐름을 순환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적 역사철학을 비판

4

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의 배경

- ▶ 지중해가 다문화 문명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는 이유는 이미 고대부터 “내적으로는 **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경제권**이었고 대외적으로는 **열린 바다**” 였기 때문이다.
- ▶ 브로델은 지중해를 수많은 만, 협곡, 섬, 반도 등으로 구분된 역사공간으로 정의하고, 하나의 독립된 연구단위로 간주할 것을 주장한다. **브로델의 지중해학**은 유럽문명의 형성과정에서 지중해가 차지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유럽주의적 심리의 표출은 아닐까?
- ▶ 지중해의 가장 큰 정체성은 지리와 문화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. 지중해에 몰입하면 인도양이 보이지 않는다(유럽지역-지중해-중동-인도양의 Civilizational Connection)

5

중세 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의 정체적 요인들



1) 중세 지중해 문명교류의 경계

- 2) 이 경계선은 지중해를 남북으로 양분
- 3) **종교-정치-경제적 정체성의 경계**
- 4) 군사-정치적 경쟁과 경제적 협력의 관계
- 5) 중세 지중해 문명교류의 유형들은 이 경계의 접점지역에서 형성

6

중세 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의 정체적 요인들

정치, 경제적 특징이 지배적인 고대 지중해 문명 교류의 유형들과는 달리, **Monotheism에 기반한 종교적 다원주의**가 추가된 새로운 시대(중세)의 문명교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.

- ▶ 근본적인 이유로는 **다신교 사회에서 일신교 사회로의 전환**을 지적할 수 있음.
- ▶ 인종, 종교, 문화,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문명, 유럽지역-지중해 문명의 통합, 유럽-인도양의 Interconnection을 **중재**한 새로운 문명으로 **이슬람 문명**이 출현

7

중세 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의 정체적 요인들



- 1) 기독교 유럽 지역의 농업경제는 지중해 교역(수입-유통 무역)으로 보완
- 2) 이슬람 상인들의 지중해-인도양 중계무역
- 3) 이탈리아-이슬람 상업 및 교역활동은 알프스 이북의 유럽지역과 중동, 인도양 문명권을 중계하는 중재의 역할 담당
- 4) 종교-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교역 활동의 관계 균형
- 5) 고·중세 지중해 문명의 동남풍 8

중세 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의 정체적 요인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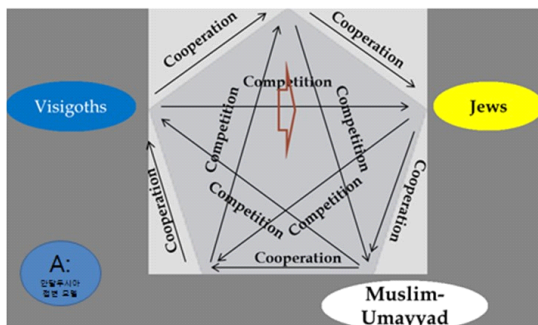
◎ 중세 안달루시아의 접변형 문명교류 유형

- Americo Castro, 7-16세기 이베리아 역사의 Convivencia
- 19세기 유대인 사학자 Heinrich Graetz: Christian-Jews의 Myth;
- Mark Cohen: ‘종교간 유토피아를 Myth로 이념화’ 시킨 것 (Jews-Arab의 Myth)
- David Nirenberg는 Convivencia 시대의 ‘평화적 공존’ 을 반박

- ▶ **Historical archives**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 부족
- ▶ 연구전문성 부족; 구체적인 **사례연구 부족**
- ▶ 민족주의적 이념에 의한 **기획 연구** 성향
- ▶ 전문연구자 보다는 정치, 언론, 관광 등의 관점에서 **과장된 측면**

10

◎ 중세 안달루시아의 접변형 문명교류 유형



- 로마 몰락(476) - 시민권, 법치, 유럽-지중해 경제권 편입
- 서고트(Visigoths)
 - 기독교 교리 분열/종교탄압(유대교)
 - 경제적 착취/로마식 통치 종식/ 파괴에 의한 정복
- Islam
 - 종교적 통치관
 - 세계를 Islam 순화지역과 정복해야 할 전쟁지역으로 구분
- Christian(Reconquista)
 - Interfaith coexistence의 위기
 - 종교적 차이를 차별, 탄압으로 해석

Andalusia: 고/중세 다문화 문명교류의 특징들

고대

로마

- 정치, 경제적 명분: 세금, 군사권, 정치권, 외교권 대가로 자치적 삶
- 종교적 자유: 자유로운 종교활동(종교적 비간섭-다신교 사회) 보장
- 법적 명분: Roman Integration, 로마 시민권 부여

Visigoths

- 동일종교 내 교류분쟁과 연결된 정치적 탄압
- 경제적 탄압(과도한 세금)
- 신분제 고착화

중세

이슬람

- 종교적 명분: 종교적 제약-종교 간 분쟁과 갈등
- 정치, 경제적 명분: 세금, 정치권, 군사권, 외교권 대가로 일정한 자유를 보장
- 경제적 명분: 경제활동 보장

15세기 이후

- 종교적 명분: 종교적 획일화와 탄압
- 정치, 경제적 명분: 세금, 몰수, 종교재판
- 경제적 명분: 경제활동 제약
- 사회적 명분: 폐쇄적인 종교사회로 회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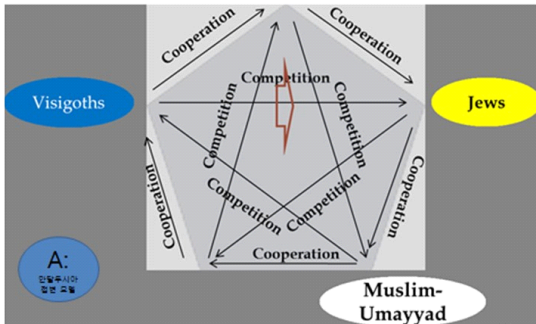
12

◎ 중세 안달루시아의 접변형 문명교류 유형



- 세 종교 간 공존에 있어 극단적인 탄압(추방, 강제개종 등)은 거의 없었다.
- 타(他)종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수용성은 존재했다.
- 15세기 이후 기독교의 대(對)이슬람, 대(對)유대교 적대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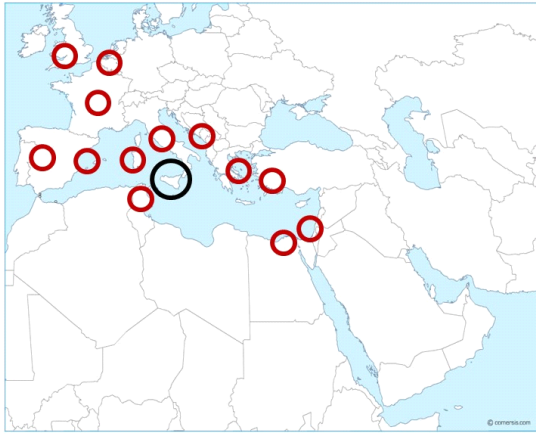
▶ 각 종교의 교리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배타성에 대한 고려(예: **유대교 랍비들의 자발적인 내적(內的) 폐쇄성**은 종종 대외적인 배타적 행위들로 잘못 해석되곤 했다.)



- ▶ 유대대(有待對) 유유행(有流行)의 문명교류 유형
- ▶ 중재요인 작용, 대대관계 성립, 유행(流行)의 과정

13

● 중세 시칠리아의 중첩형 문명교류 유형



지리적으로는 지중해의 망루(望樓)



정치-군사 및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략적 요충지; 외부세력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주요원인

- ▶ 고대 그리스 폴리스들의 서지중해 진출
- ▶ 페니키아의 서지중해 해상권 장악
- ▶ 로마의 탈(脫)농업경제 계기 제공
- ▶ Muslim의 지중해 진출 교두보 제공

14

● 중세 시칠리아의 중첩형 문명교류 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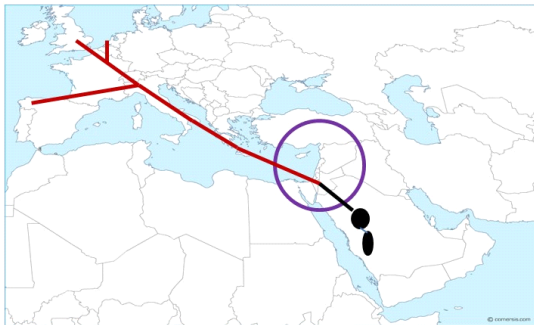
- Counterpartner-ship의 미(未)형성
- 불통의 역사
- 역사적 중재요인의 부재

- 시칠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섬 내부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 미(未)형성에 원인 제공
- 내/외 세력 간 관계 구조 및 균형 불발의 역사, 일방적인 피지배의 역사로 점철
- 역사-문화적으로 시칠리아는 지중해 문명의 요람. 동시에 지중해의 패권을 경쟁했던 세력들의 모든 문명과 문화의 흔적이 이 섬의 공간에 중첩되어 있는 현실 반증
- 독자적인 세력의 미(未)형성은 내외 간 대대관계의 미(未)성립과, 이로 인한 유행(또는 교류) 흐름의 불발; 시칠리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비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수많은 요인들의 단순 공존
- 역사발전을 위한 중재요인의 부재
 - Giuseppe Tomasi di Lampedusa의 *Gattopardo* - 지주와 소작인의 양분된 사회계층; 지주와 외부세력을 동일한 착취세력으로 간주

● 무대대(無待對) 무유행(無流行)의 문명교류 유형

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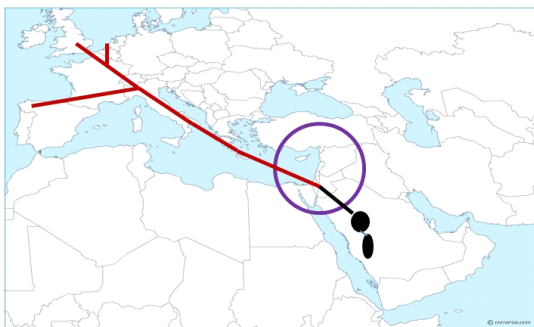
◎ 중세 예루살렘의 등배 (or 등거리) 형 문명교류 유형



- ▶ The First Qibra for Muslims
- ▶ The Birthplace of Jesus
- ▶ Main Citizens of City
- ▶ 신학자는 Kingdom of Heaven으로
- ▶ 학자들은 Umbilicus Mundi
- ▶ 지식인은 l' unique et Universe로 간주

16

◎ 중세 예루살렘의 등배 (or 등거리) 형 문명교류 유형



- 예루살렘은 지중해-중동-인도양을 연결하는 교역경제의 중심,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유일신종교의 교리적 유사성 현실로 인해 경쟁과 갈등의 상징으로 간주
- 종교문화의 획일화
 - ▶ 타(他)종교와의 다름을 다양성이 아닌 차별의 의미로 실천
 - ▶ Fanaticism, Intolerance, Extremism
- 유럽 지역과 Levant, 중동을 연결
- 세 유일신 종교의 성스러운 공간

● 유대대(有待對) 무유행(無流行)의 문명교류 유형

- Three Monotheistic Religions
- Abrahamic 기원
- 세 신앙간 **중재요인**의 부재

17

결론 ■

지중해 다문화 문명교류의 성립 요건

1.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경제권의 (열린) 바다

- 서로의 필요를 위해 교역 및 교류
- 종교적 배타성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 지속
- 로마제국의 위대함은 영토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 ‘유통경제’

2.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가 불일치한 역사

18

결론 ■■

1. 종교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지중해 문명교류의 역사

- ▶ 종교가 문화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요인

2. 종교의 배타성 요인

- ▶ 타자(他者)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인 성격의 배타성
- ▶ 타자와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배타성

3. 동일한 기원과 교리적 유사성의 종교적 다원주의

- ▶ 아브라함 기원의 종교들
- ▶ 교리적 유사성의 함정

19

결론 ...

● 안달루시아 문명교류 유형

- ▶ 유대대(有待對) 유유행(有流行)의 문명교류 유형
- ▶ 관계구도의 성립, 미완의 문명교류,
- ▶ Reconquista와 종교적 탄압으로 인한 미완의 문명교류

● 시칠리아 문명교류 유형

- ▶ 무대대(無待對) 무유행(無流行)
- ▶ 관계구도의 미성립
- ▶ 내·외간 세력균형구도의 미(未)성립에 따른 교류 자체의 불발

● 예루살렘 문명교류 유형

- ▶ 유대대(有待對) 무유행(無流行)
- ▶ 관계구도의 성립
- ▶ 유일신종교의 배타성 미(未)극복으로 인한 접변, 교류의 불발

- 자아의 인식거울에 각인된 타자의 상을 실제의 타자로 간주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
- 자아가 없는 관계요인 간 공존은 신기루
- 중재요인의 부재

